

에코투어리즘, 녹색성장 실천수단으로 부각 - 일본 「에코투어리즘추진법」과 전국대회 추진사례 -

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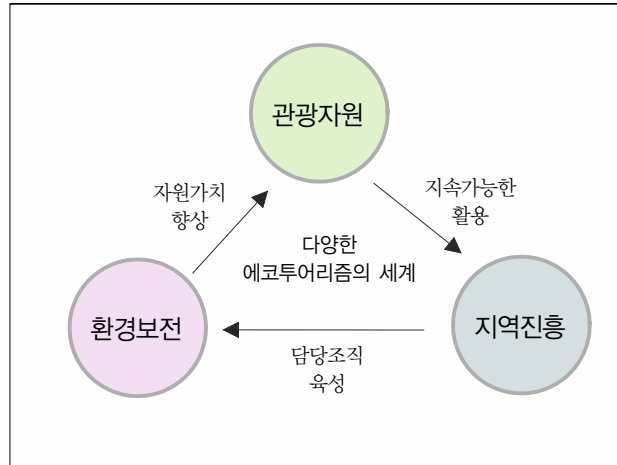
- 녹색부국 실현을 위해 정부는 생태관광을 녹색성장 10대 환경산업으로 육성할 계획
 - 세계시장에서 관광에 대한 지각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올해 들어 환경의 신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 실현을 위해 2012년까지 생태관광 시장점유율을 7%에서 25%로 제고할 계획임
 -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관광자원화, 생태문화탐방로 조성,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 및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(환경부, 2009.1.6. 환경부문 녹색성장 실천계획)
- 일본정부는 2050년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를 통해 지역을 중시하고, 자연을 지향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차세대 투어리즘으로서 ‘에코투어리즘’이 일본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
 - 2007년 6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「에코투어리즘추진법」(법 제105호)을 제정하고 2008년 4월부터 지역중시, 자연지향의 에코투어리즘 대상 선정과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
 - ‘에코투어리즘’이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대상으로 이들을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보전에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관광형태임
- ‘에코투어리즘’이 녹색성장의 실천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에코투어리즘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
 - ‘에코투어리즘’은 이제까지의 패키지·통과형 관광과는 달리 지역, 환경, 관광이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, 환경교육과 녹색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달성 가능함

1. ‘에코투어리즘’ 개요

■ 에코투어리즘이란?

-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대상으로 이들을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보전에 책임의식을 갖는 관광형태
- 에코투어리즘 실현에는 ‘지역’, ‘환경’, ‘관광’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
- 에코투어리즘은 각 지역의 보석인 전통과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를 통해 국가부흥을 이끌어내는 원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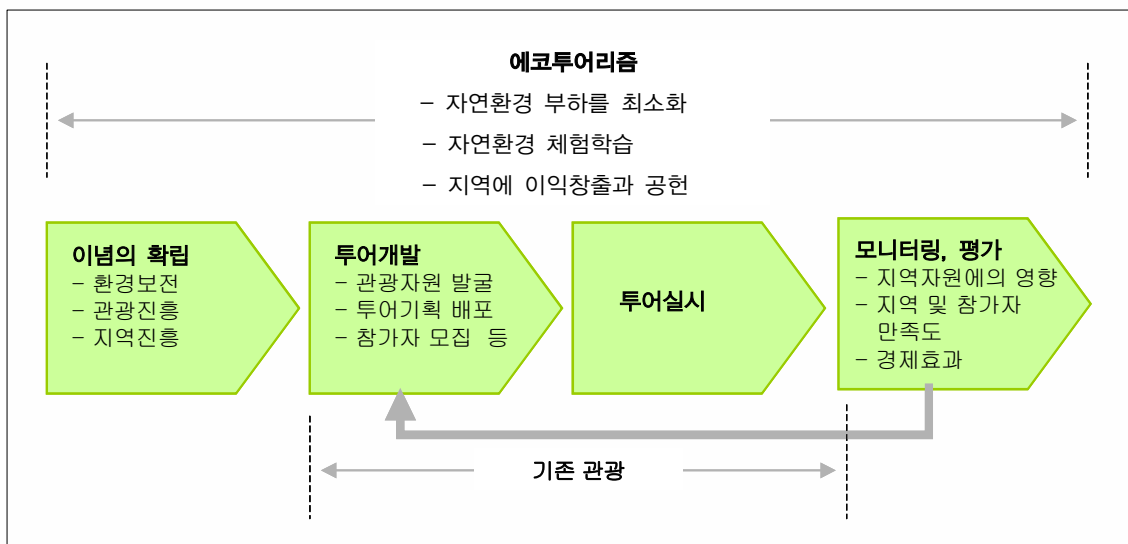
【그림 1】 에코투어리즘 개념도



■ 에코투어리즘과 기존 관광의 차이점은:

- 에코투어리즘은 자연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환경을 체험·학습하여 해당지역의 이익에 공헌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한 관광행태임
- 단순히 투어를 개발하고 실시하는 기존 관광과는 달리 환경보전, 관광진흥, 지역진흥 등의 이념을 확립하고, 지역자원への 영향과 지역 및 참가자 만족도, 경제효과 등을 모니터링·평가하여 환류하는 점이 다름

【그림 2】 기존 관광과 에코투어리즘 차이



2. 일본의 「에코투어리즘추진법」 개요

- 일본정부는 2007년 6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「에코투어리즘추진법」(법 제105호)을 제정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
 - 에코투어리즘 추진은 환경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이 문부과학대신,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하여 기본방침안을 작성하고 각의 결정하도록 함
 - 에코투어리즘의 장기 목표를 정하고 기본방침안은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함
- 에코투어리즘 추진의의는:
 - 원칙을 설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실천하는 효과
 - 지역고유의 자연환경 및 생활문화 등의 매력을 발견하는 효과
 - 관광지로서 경쟁력 향상, 새로운 관광진흥 가능성 등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
- 에코투어리즘 추진방식은:
 - 관계자 협의 → 지역의 보물을 재인식 · 발견 → 보물 창출 → 보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 및 전달 → 관광여행자의 감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지역활성화 도모
 - 절실하게, 즐겁게, 지역을 주체로 한다는 인식이 기본이며, 지산지소(地產地消: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함)의 방침 등 농림수산업을 위시한 관련 산업과 연대 · 조화, 기타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계획 등과의 정합성 고려, 지역의 생활 및 관습을 배려해야 함
-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체 구상을 제출하여 전국대회 등 추진
 - 대상이 되는 자연관광자원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‘원칙’ 등을 정하고 ‘가이던스 프로그램(guidance program)’을 실시하며 자연관광자원 상태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, 이것을 원칙과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관리방식으로 진행
- 전체 구상이 인정되면 ① 이제까지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던 자연관광자원을 ‘특정자연관광자원’으로 지정할 수 있고,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질 높은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, ② 지역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됨

【그림 3】「에코투어리즘추진법」 체계

에코투어리즘이란

관광여행자가 자연관광자원에 대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내 및 조언을 받아, 당해 자연관광자원을 보호 및 접촉하면서 이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심화시키는 활동

배경

-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→ 자연과의 접촉,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
- 자연에 미치는 관광의 악영향(답사로 인한 훼손, 쓰레기 문제, 혼잡 등) → 자연보호를 위한 관광추진



추진체계

기본이념

-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
- 지역진흥에 기여
- 관광진흥에 기여
- 환경교육에 활용

정부가 에코투어리즘 추진의 기본방침을 책정

지역추진체계 구축

- 시정촌은 사업자, NPO 등 전문가, 토지소유자, 관계행정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음
- 협의회는 에코투어리즘 추진에 대한 전체 구상을 작성하여, 에코투어리즘을 추진 → 에코투어리즘의 표시방법, 자연관광자원(동식물 생식지)의 보존조직 등을 규정

전체 구상의 보존

- 시정촌은 주무대신에게 전체 구상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
- 전체 구상에 의한 에코투어리즘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고노력을 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배려
- 시정촌은 인정된 전체 구상에 따라, 보존을 구할 수 있는 특정자연관광 재원을 책정할 수 있음 → 오물, 훼손 등의 금지, 이용자 제한 등이 가능

3. 일본의 에코투어리즘 전국대회 사례

● 에코투어리즘 전국대회 개요

- 에코투어리즘 전국대회는 지역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에코투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, 이를 위해 전문가(각 지역 대학교수, NPO단체 등)의 발표 및 토론회, 에코투어코스 개발 및 시행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새로운 에코투어를 정착하기 위한 것임
 - 국가 시상 및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발적 홍보대회 성격임
 - 일본에코투어리즘협회(Japan Ecotourism Society: JES)가 주관하는 대회로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친화관광, 지역자원의 건전한 이용과 존속,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함
- 도야코(洞爺湖, '08.10), 오가하라(小笠原, '08.12), 다카시마(高島, '09.2)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, 지역특성의 에코투어리즘 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

● 도야코(洞爺湖) 에코투어리즘 전국대회('08.10.3~5) 사례

- 2008년 7월 G8 환경서미트가 개최된 홋카이도 지역 내 도야코 주변의 '화산'이 주요 테마임
 - 이제까지 도야 지구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·수학여행 등 대중관광(mass tour)에 크게 의존해 옴
 - 그러나 최근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여행인구의 감소, 기호의 다양화에 따른 대중관광의 감소, 도내 경기의 초장기적 침체 및 원유가 상승 등에 의한 관광객수의 감소, 시설 노후화에 의한 총체적 비교우위성 저하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비수기에 에코투어 추진

【그림 4】 해안마을 연어잡이 에코투어 코스



사진 위: 토요우라 전경, 아래: 연어 그물잡이 체험 모습

- 도야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5개 코스의 에코투어리즘을 통해 자유행 지역발전의 가능성, 도야코 관광자원의 가치 제고와 새로운 지역매력 창출을 도모함
 - A: 쇼와신잔(昭和新山)과 우수잔(有珠山)의 화산분화 코스: 활화산 탐방
 - B: 도야코(洞爺湖)의 전망과 과수원 코스: 수려한 자연의 조망과 과일 따기 체험
 - C: 타카라다(財田)의 전원과 호반 순회 코스: 이국적인 타카라다마을 탐방
 - D: 다테(伊達)의 개척의 역사와 문화 탐방 코스: 다테시의 역사와 문화 탐방
 - E: 토요우라(豊浦)의 해안분화지역 바다의 은혜탐방 코스: 해안마을 연어잡기 체험

● 다카시마(高島) 에코투어리즘 전국대회('09.2.5~7) 사례

- 중앙분수령(中央分水嶺) 주변의 산림문화와 비와코(琵琶湖) 주변의 호수문화가 주요 테마임
 - ‘물’과 ‘사람’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비와코 지역의 특색 있는 생활문화와 전통, 지역풍토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독특한 발효문화를 바탕으로 대회가 구성됨
 - 비와코 담수문화권의 ‘식문화’ 체험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협력하여 대회를 개최
- ‘담수문화권 다카시마로부터의 신관광선언’을 통해 각 지역의 전통과 생활문화가 국가부흥을 이끌어내는 원천임을 강조함
 - 특히 다카시마의 전통, 산림과 호수문화가 어우러진 이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, 즉 ‘다카시마의 문화력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,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을 기반으로 지속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
 - 지역주민들을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역의 토속음식을 소개하고, 유기농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, 비와코와 수변문화권의 음식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의 중요성, 주변지역과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을 공유
- 다카시마의 각 지역특색에 맞도록 ‘호수’, ‘숲’, ‘발효음식’ 등을 주제로 6개의 에코투어 코스 구성
 - 코스개발은 다카시마시 공무원과 소상공인, 지역주민, 전문가 등의 참여와 조사, 자문 등을 토대로 구성
 - 지역노인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현지 가이드로 참가

【표】 다카시마 에코투어코스 개요

구분		에코투어코스 설명	
		주요 테마	특징
A코스 (마키노)		현대와 옛 발효식의 미각	• ‘산아버지’와 만나는 겨울의 미각 • 지역풍토가 만든 발효식의 현재와 옛이야기
B코스 (이마즈)		호수 어부가 조달한 요리	• 겨울철 비와코 향해 • 호수 어부가 조달한 요리를 맛본다
C코스 (쿠츠키)		깊은 산중 사냥꾼의 맛	• ‘고시마키 도시락’ • 비와코의 시작인 ‘쿠츠키’에 산다
D코스 (아도가와)		아도강의 은혜, 향토 요리와 대나무 솔밥	• 신죽취이야기, 겨울의 제전 • 나가에 토주(中江藤樹) 선생(양명학의 대가)의 가르침과 아도강의 은혜(장인의 기술과 음식)에 접하는 여행
E코스 (신아사히)		가바타의 가정 요리	• 물과 함께한 생활과 생업 • 겨울의 사토야마에서 전해오는 천 년 생수 ‘가바타 문화’(川端) • 봄을 기다리는 비와코와 물새 이야기
F코스 (다카지마)		차가운 물이 가져오는 요리	• ‘차가운 물’이 가져오는 계단식 밭의 생활 • 조카마치(城下村)에 전해지는 발효식품(붕어절임, 술과 식초)의 맛

4. 에코투어리즘 성공의 10가지 조건

- ① 지역의 브랜드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라
- ②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
- ③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
- ④ 에코투어가이드와 현지가이드를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
- ⑤ 지역자원의 가치발견과 평가가 중요하다
- ⑥ 환경용량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

- ⑦ 지역 인재의 육성을 통한 지역의 장기적 이익 공유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
 - 에코투어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가이드가 필요
 - 이를 고려한 인재육성이 지역의 장기적 이익임을 공유하여 인재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장려
- ⑧ 궁극적인 콘텐츠는 지역에 자긍심을 갖는 지역주민들이므로 적재적소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배치하라
 - 에코투어의 무대는 자연환경이고, 최대 콘텐츠는 결국 지역주민임
 - 적재적소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배치하는 것은 에코투어의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
- ⑨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를 통해 건강한 소비행동의 기회를 제공하라
 - 생산자에겐 도시 소비자의 요구(need)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, 소비자에겐 바른 먹을거리 등 건강한 소비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⑩ 지속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주민들과 소비자 간의 쌍방향 소통과 의식 형성, 라이프스타일의 변혁을 도모하라

5. 정책적 시사점

- 에코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·통합적 제도와 정책 정비
 - 환경부, 농림수산물식품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추진체계 마련
 - 지역의 자연·역사·문화자원을 보물과 명품으로 만드는 에코투어리즘 지원 확대
- 강과 호수 등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‘어메니티 회랑’과 ‘문화력’의 창출
 - 수변문화권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산업으로 발전·육성
 - 우리나라는 2만 6549개소의 하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, 이들 유역권을 중심으로 어메니티 회랑을 만들어 고유의 ‘스토리’와 ‘수변문화’를 창출함으로써 에코투어리즘으로 발전시킬 잠재력과 가치가 있음

● 국토연구원 김선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(shkim@krihs.re.kr, 031-380-0280)